

번역 학원

며칠 전, 동영상 강의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동영상을 통해 번역 강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번역을 동영상으로 강의한다? 한겨레 문화센터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기는 했다. 그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구실로 완곡하게 거절했다. 이번에는 거절하기가 더 쉬웠다. 번역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주된 고객으로 한다는 말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런 사기극(?)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번역사를 1급, 2급 등으로 나눈다는 것도 우습지만 그 자격증을 출판사에서 인정해준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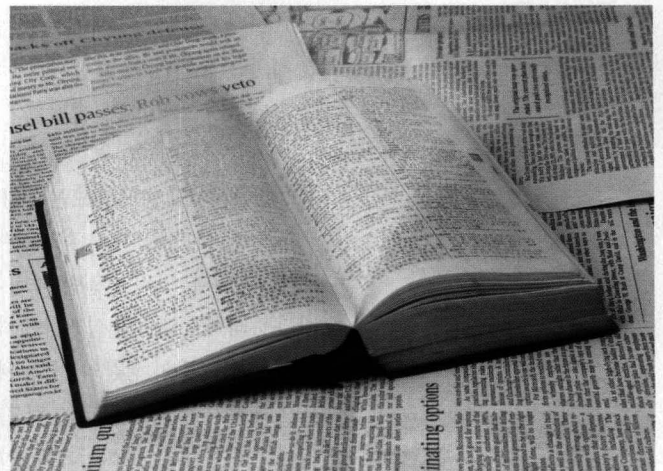
글_강주헌

번역은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일까?

번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동영상 전문 학원에서도 번역 강좌를 생각할 정도이니 말이다. 실제로 회원수가 6,000명이 훌쩍 넘는 번역카페도 보았다. 어쨌든 번역을 꿈꾸는 사람이 많으니 좋기는 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번역 학원' 이라 써보았다. 많기도 많다. 학생의 입장에서 그 많은 학원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지도 고민이 될 법하다. 대체 어떤 기준에서 학원을 선택할까? 이 질문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번역은 어떻게 가르쳐야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질문이 된다. 따라서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게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번역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정답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귀가 닳도록 말했듯이, 번역은 수학 문제에 비유할 수 있다. 직접 해보고, 그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방법이 최선인 것을 알아도 여간 독한 학생이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다. 미리 해보라고 숙제를 내주지만 처음에만 그런대로 예습을 할 뿐이다. 조금 지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출석만 해줘도 고마울 지경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한 명에게 숙제를 강제로 할당한다. 숙제를 맡은 사람이 결석하면 수업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는다. 다행히 거의 4년 동안 숙제를 맡은 사람이 결석한 적이 없어 수업은 원만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왜 강제로 숙제를 할당할까? 물론 누군가의 번역을 두고 비판적 안목에서 가



르치는 방법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편하기도 하지만 학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 학생을 위한 것일까?

첫째, 한글로 쓰인 글을 읽는 연습이다. 번역된 글은 어차피 한글이다. 남의 글을 읽으면서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는 연습이 자연스레 된다. 모순된 부분은 오역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훈련을 하다보면 자기 글에서도 모순을 찾아내기가 쉬워진다.

둘째, 남의 글에서 배운다. 번역에는 정답이 없다. 수업 시간마다 내가 한 번역을 나눠주지만 내 번역이 정답은 결코 아니다. 지금도 학생의 번역에서 너무나 자연스레 풀어낸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내가 모르는 번역 테크닉을 남의 글에서 배우는 셈이다.

셋째, 다양한 글을 보면서 자기만의 문체를 완성해갈 수 있다. 또 문체라는 문제가 나왔다. 한겨레의 강의는 총 10개의 텍스트로 이루어진다. 각 텍스트가 분야와 문법 및 난이도에서 나름대로 구분이 된다. 물론 글의 분위기도 다르다. 문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번역은 원문의 문체를 고스란히 옮기는 것이 아니다. 분위기를 옮기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똑같이 슬픈 분위기여도 사람마다 글을 써가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저런 글을 보면서 나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만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배울까?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종로 YMCA 부근에 단과 학원들이 밀집해 있었다. 인기 강사 강의에는 1,000명 이상의 학생이 몰려들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 시절에는 감지덕지하고 배웠다. 물론 고액 과외를 개인적으로 받는 학생도 있었고, 20~30명을 단위로 한 고급 학원도 있었다.

수업 효과는? 답은 선생의 실력과 학생의 의지에 따라 달랐다. 인원 수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번역 학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의미에서 고액 과외식 번역 수업은 앞에서 말한 3가지 장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자칫하면 선생의 문체, 혹은 선생의 글쓰기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말하는 번역은 실전 번역이다. 한국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번역학의 기본 개념은 뭐고 이런 이론적인 면을 몰라도 된다. 고매한 학자께서 번역은 의미가 통해야 하고, 원작자의 의도를 반영해야 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원작과 동일한 감정과 반응을 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원래 학문이란 당연한 말을 그럴 듯하게 정리

해놓은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추상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이란 하나의 문장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10만 단어로 쓰인 책이 있다고 해보자. 10만 단어로 하고 하지만 어휘수는 5,000개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문장을 따져보자. 대략 한 문장이 10단어로 정도로 이루어졌다면 1만 문장이 된다. 그런데 그 1만 문장에 쓰인 단어의 조합이 거의 언제나 다르다. 결국 구체적인 방법론이 10만 단어로 된 책을 번역하는데 극단으로 말하면 1만 가지라는 뜻이다.

이쯤되면 번역의 방법을 배운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른 문장들이 쓰였을 테니까. 그러나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다. 왜 그랬을까? 영어 문장의 구성이 아무리 달라도 일정한 패턴에 가두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영어의 모든 문장이 다섯 가지 형식에 들어간다고 배웠다. 좀더 복잡하게 말하면, 영어는 44개의 패턴만 읽히면 끝난다.

그러나 영어만 끝난다(꼭 그런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영어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접어두기로 하자). 하여간 무한히 다양하게 쓰인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이해한 내용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냐에 따라 번역 학원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학원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앞서서도 말했듯이, 효과는 선생의 실력과 학생의 의지에 달렸다. 선생의 실력을 어떻게 객관적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선생의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면 결국 열쇠는 학생이 쥐고 있는 셈이다. **■**

강주현님은 언어학 박사이며 전문번역가로 활동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수학했다. 역서로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선물》 《나의 프로방스》 《계으른 산책자》 등 100여 권이 있다.